

건축의 현재: 이토 도요의 센다이 미디어테크

김광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토도요 미디어 테크의 설명을 하기 전에 건축의 전반적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건축의 유형이 많아졌는데, 그 한 현상으로서 쇼핑몰이 박물관보다 많아지고 서점이 도서관 기능을 흡수하려 하고 있다. 회원제나 인테리어 스페이스가 그러하다. 또한 헤어샵에 샬러드 바가 있는 등 소량이면서 다품종의 상점을 만들려는 전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경계를 없애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행위이다.

경계와 사람들의 행위는 사진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먼저 나고야 시의 위성사진을 보고 노인들의 산책로의 범위를 알 수 있고, 회사원의 생활 범위를 그 회사원의 회사가 나타난 도시 사진에 선을 그려 표시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지역을 범위 이외에도 커뮤니티 별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사람이 이사를 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도 새로이 이공간 곳이 전에 살던 곳과 비슷하게 만들어 산다는 것이다.

명동의 한 커피숍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사람의 행위를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명동의 거리를 찍은 것인데 여기에는 매우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사람의 행동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아지게 되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한다. 이 사진에는 사람들이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먹으로 갈 수도 있고, 커피숍에 갈 수도 있고 쇼핑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현대의 삶의 방법이고, 삶의 방법은 건축에 영향을 준다.

현대의 삶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서 편의점을 들 수 있다. 편의점은 호객 행위도 점원도 없다. 즉 익명적인 것이다. 편의점은 비어있는 경우가 없다. 판매되면 그 때마다 바코드로 인식되어 정보를 전달하여 편의점으로 물건이 배달되게 되어 있다. 또한 편의점은 항상 문이

열려있고 형광등이 켜져 있어 물건을 균질하게 보이게 한다. 물건을 팔면서도 편의를 같이 팔고 있다. 편의점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구청과 같은 공공시설을 편의점과 같이 만들면 좋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누구나가 들어가서 정보를 얻고 쉴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센다이 미디어테크의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이 미디어테크는 처음에 반대가 많았다. 겉면이 유리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진이 났을 때의 위험, 복사열이 많은 점. 고시공부하는 학생이 장악한다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현재 미디어테크는 센다이를 유명하게 만들고 세계적인 건축물로 인정받고 있다. 미디어테크의 겉면의 유리, 평평한 공간, 파이프로 된 기둥, 그리고 벽이 없다는 것이 그것을 가능케 하고 있다. 평평한 바닥은 길에서와 같은 자유로운 행위를 가능하게 하였고, 기둥은 투명한 튜브로 만들어 시각적 공간 제약을 없앴으며 이것은 창고와 같은 자유로운 방치를 가능하게 하여 현대 생활을 잘 나타낸다. 유리는 밖과 안의 구별을 없앤다. 즉 경계를 없애고 미디어테크안에서 도시의 풍경을 즐긴다. 마치 고원의 벤치 같은 기분이 들게 한다.

직감적인 생각이지만 이 건물은 일본에 적합한 건물, 일본다운 건물이고 영·미·유럽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 서양과 같은 무거움이 없고, 가벼움이 있으며 팀워크가 잘 이루어져 보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특징으로 삼을 만한 것으로서 주민의 참여를 들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건설 계획에 있어서 주민 참여를 권해도 주민이 참여를 하지 않아 주민으로부터의 요구가 적고 이에 따라 기획의 범위도 줄어들게 된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주민의 참가가 많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가 생기고 설계하고 기획하는 사람들이 이 의견들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일본의 지역 만들기에서 자주 나타나는데 일본에서는 건물의 설계에서도 나타난다. 일본은 기획자가 주민들에게 각자 디자인 해보라고 권유한다. 신기하게도 한국과 달리 응답을 해주는 사람이 있고 기획자들은 이를 반영한다. 심지어 재료를 같이 고르기도 한다. 이것이 일본적 특징이라고 생각한다. 편의점과 같이 익명적이면서도 자신들의 주변에 매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